

명예기자석은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애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2 ~ 4매
◇보낼 곳 : 서울 <본사편집실>, 수원 <공과대학 614호>

‘북한의 문화예술’ 심포지움을 다녀와서

지난주 모든 방송과 신문은 장식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곧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높은 관심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북한의 문화예술’에 관한 심포지움은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후원:국토통일원)가 주최했던 이번 심포지움은 북한의 문학, 미술, 영화, 음악, 희곡·극 부분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치러졌다. 그러나 심포지움의 내용은 발표자와 주제측의 행사외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감만 불러일으켰다.

우선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의 중압적인 조명등과 화려한 초대객들은 차치하더라도 단순한 비단일색의 주제발표는 무성의를 떠나 발표자들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자가용 등교·열람실 부족 등 누적된 학내 문제 교수·학생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자동차를 엄격히 통제하라. 학교가 주차장이나 도서관이 사무나 탕이나. 이런 곳에서 공부하겠느냐?

학생은 많은데 교수는 왜 이리 적어, 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실제로 못지 못할 이 이야기는 경제와 설문 조사에서 나온 말이다.

학교 이곳저곳에, 아니 빈곳이면 어느 곳에나 서있는 차, 그리고 여름이면 땀으로 목욕하는 듯한 도서관의 에어컨 증기는 요구된다.

게다가 학교에서 친절하게도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학과 과목들은 3, 4개 중 2, 3개를 선택해야만 하는 형식성. 진정 학과의 주체는 학생 자신이라 외치면서, “그런 교수의 권리 아닌가.” 아 그것은 학교와 타협해야 하는 교수님...

나는 이자리에서 구구절절 우리학교의 문제들을 나열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일반 학우로서 몇 가지 의견을 가져본다. 우선 지금까지 학생회가 너무 학우들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분석하고 형식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교수 또한 학생들과 학내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왜, 학생들과 성실하게 토론하지 못하는 것일까? 또한 과 선배의 이야기를 빌리면 아주 일부 교수들의 일주일 강의시간이 평균 20시간을 넘어간다는데, 왜 새로이 신설되는

인스턴트 커피로 대변되는 식(食)문화

9월주제 ‘주한미군’

지금부터 40여년전 해방이 되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하였다. 어련년에 비친 주한미군은 국방색 찰자에 올라탄 노란노고 노랑머리를 하고 짙은 짙은 검은 씩는 신기한 모습이였다. 생소하기는 하였지만 그네들이 던져주는 알사탕을 주어먹기 위해서 그 뒤를 좇아 따라 다니던 일이 생각난다. 그러다가 6.25사변으로 폐허가 된 서울거리로 미제 껌발이 소년들이 등장하였다. 몇번 씹고 나면 단물이 다 빠져버리고 송진 냄새만 나던 당시의 국산 껌에 비해서 미제껌은 품질이 월등히 좋았다. 고기는 커녕 까나도 먹지 못하던 때에 기 동조였으니, 햄, 베이컨, 소시지등을 먹는 미군들이 한없이 부럽기만 하였다.

이런 음식들이 미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였으리라 믿는다.

또 신기한것 중의 하나로 부대고기라는 것이 있다. 지금도 부대고기집이 더러는 남아 있지만 휴식기간이 지난 쏘시나 햄등을 값싸게 팔아(?) 팔아 요리한 것으로 맛이 있고 값이 싸기 때문에 일부사람들이 즐겨 이용하였다.

커피 또한 미군들이 가져온 중요한 음료이다. 이렇게 이방인이 지나가는 길에는 생소한

조재선 <산대교수·식가공>

음식이란 원래 신선하고, 먹이는 앞에서 만든것이 제맛이 나는 법이다

음식을 즐기려면 마땅히 신선해야 하고 보는 앞에서 만들어야 믿음이스러우며 격에 맞추어 먹어야 한다. 아무튼 물물듯이 외래식품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돈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사먹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주한미군이 먹는 음식쯤이야 알잖아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른것이다.

알림터

<고 황골>

무역학과 10주년 기념행사

무역학과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경희국민학교 운동장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많은 동문이 참가할 예정이며 문화체육행사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K.H.P.C 사진전시회

K.H.P.C.(경희사진연구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제22회 정기 사진전시회를 연다.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전시되며, 전시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

9월문화예술학교 개강

본교 민주주의 학생연맹 (건설준비위원회)주최로 9월문화예술학교가 의대 본·2 강의실에서 열린다.

강의주제는 18일은 ‘사회과학과 예술’, 25일은 ‘민족문화와 전방’

목소리·MUSIC LINE 정기공연

신방과 노래 동아리 ‘목소리’의 제4회 정기공연이 오늘부터 3일간 오후시간대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있다. 또한 노래동아리 ‘MUSIC LINE’ 제3회 정기공연이 오는 21일 오후 5시반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서천골>

원예학과 원고·마스코트 공모

원예학과 편집부는 10월말 발간예정인 학회지의 원고를 시·수필·기행문에 걸쳐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또한 23일 체육학과 대학관 앞 운동장에서 등문 체육대회가 열리며 이때 사용될 마스코트, 꽃이름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V.O.U 수습방송요원 모집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 오는 25일까지 제11기 수습방송요원을 추가모집한다.

1학년 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로 모집하며 자세한 문의는 교내전화 2057, 2129로.

경희TV 시험방송

경희TV준비모임(가칭) 오늘부터 3일간 각 단대 휴게실에서 1시간여에 걸쳐 시험방송을 실시한다.

뉴스와 9·20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송되는 이번 시험방송은 서강 TV, 한양 TV건설 준비위와 공동제작했다.

자세한 프로그램 문의는 구내전화 2807로.

알림터는 학과와 동아리의 크고 작은 소식들로 독자여러분이 꾸미는 란입니다.

현 정권의 통일정책을 보며

잡끄대 아닌 잡끄대! 이것은 통일지사 문익환목사가 1989년 새해벽두에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을 결심하고 그 결의의 단호함을 표현한 시의 제목이다. 이 시의 마지막 연인, 난 걸어서라도 갈테니까 /

고 봉수교회의 부활절예배에 참가하여 통일은 곧 우리민족의 부활이라는 것을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라는 노래에 담아 북녘 동포에게 전했으며, 김일성주석, 조국평화통일위원회회의 회

집 수 없다는 민족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불꽃을 쏜 주저적 민간교류는 임수경, 문규현, 황석영씨로 이어져 이제는 각계각층의 통일외지를 모아낸 대규모 민간교류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호전광으로만 여겨왔던 북의

돌부리 드러난 자갈길

법을 만든 사람조차 어기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아직껏 당당히 버티고 서 있는데...

답속에서 남북한 통일정책의 커다란 간극을 좁히는 통일의 사절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해 낸 것이다.

특히 연방제 통일 방안에 있어서 협상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라는 절충을 얻어낸 것, 그리고 다방면에 걸친 민족의 자주적 교류와 정치군사회담의 동시추진에 대한 합의는 분단반세기를 넘

정치군사 책임자들이 남한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환영속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북평화를 맺었으며 남쪽의 대표와 손을 맞잡고 통일의 장애를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익환목사의 말솜씨처럼 국군의 삶이 썩은 북녘땅 한 삼과 공산군의 피로 범벅이 된 남북평화를 한 삼씩 때서 합장을 지내는,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민족자주를 위한 외국군대 철수, 연방제 통일등의 말만 나와도 파벌로브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위정자들의 병적인 판단불균형이, 통일의 길에 파여진 커다란 함정으로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불균형은 통일지사들의 방북에 대

백인종 <중문·2>



“작은 손길 하나도 고귀한 이 가을에...”

우리나라 속담에 “가을이면 부지깥에도 덩달아”는 말이 있습니다. 들녘에서, 먼 바다에서, 산골에서... 우리들의 가을은 이렇게 수확의 울적임들로 부산해집니다.

애써 심고 정성들여 가꾼 땅의 결실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다며 풍요한 햇빛과 물과 바람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부모와 이땅의 평범한 많은 이들의 삶의 철학이 없었다면 가을의 거두어들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식인 쌀은 물론

고추나 참깨, 밭아람, 버섯, 바다에서 건져올리는 해산물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고, 수확을 위한 그 어느 손길 하나도 없이 고귀한 이 가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그 귀한 손길들에 힘을 보태고 또한 내가 거둬야 할 수확들을 생각합시다.

그러하여,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함께하는 이 땅의 어우러진 삶속에—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